





정경집 별첨시화문  
가이드  
총론

## 목차

1. 접근성이란 무엇인가 13
  - 가. 접근성의 개념 15
  - 나. 접근성과 관련한 용어들 20
  - 다.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와 흐름 27
2.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 가이드 35
  - 가. 문화시설 접근성의 범위와 유형 37
  - 나.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접근성 유형 45
3. 장애유형별 고려사항과 접근성 향상 수단들 53
  - 가. 6가지 장애 유형과 특징 55
  - 나. 문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접근성 수단들 63
  - 다. 장애 및 접근성 관련 기호와 상징들: 픽토그램 69
4. 문화시설 이용 여정에 따른 접근성 75
  - 가. 문화시설 관람객의 경험지도 77
  - 나. 경험지도와 문화시설 접근성 81
5. 접근성에 관한 FAQ 89
  - 기획 단계에서의 질문들 92
  - 진행 단계에서의 질문들 93
  - 종료 단계에서의 질문들 95
- [별첨] 참고할 만한 자료들 97
  - 가. 관련 기관 및 단체 99
  - 나. 관련 제도 및 사업 112
  - 다. 주요 참고자료 116





#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운영자와 기획자, 프로그램 담당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 모두를 위한 접근성

이 가이드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업무를 맡아서 ‘어디 한번 해볼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하면 할수록 더 어렵네. 이게 맞아?’라며 이미 어느 정도 접근성의 쓴맛을 보신 분들까지 말이죠. 누구에게든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문화시설 담당자<sup>1)</sup>로서 접근성을 적용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상황이라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아닌데, 혹시나 실수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 예산이나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가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문화시설에 있어 접근성은 단지 장애인 관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접근성이란, 여러분이 준비한 전시, 공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많이 보고,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태도로서의 접근성이 여러분들이 속한 문화시설과 기관의 지향점이자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다들

### ※ 장애인과 비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주요 용어는 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사용하게 될 ‘장애인’과 ‘비장애인’ 표현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일컬을 때 지체부자유자, 장애자, 장애우, 비정상인 등으로 표현했으나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로는 ‘장애인’으로 통일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참여자’, ‘장애인 관객’처럼 보다 설명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인’, ‘정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1. 본 가이드에서는 문화시설 중에서도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더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의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물리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서비스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접근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정책적으로 물리적 접근성 개선에 대한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연구, 가이드라인, 시설 구축에 대한 매뉴얼 역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시설들은 계획 단계부터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가이드는 물리적 접근성을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과 콘텐츠, 서비스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턱’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접근성 가이드

그 선택으로 인해,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설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이 가이드를 펼치셨다면, 접근성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고 어느 순간 가장 앞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화시설 접근성은 어느 한 개인의 관심과 의지의 차원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가 접근성을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자 안내자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의 경험과 고민들이 쌓여가고,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과정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언젠가는 ‘각 시설별 맞춤형 접근성 가이드’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본 가이드는 총 네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표 1] 접근성 가이드 권종별 구성 Ⅰ

접근성 시작하기		접근성 적용하기		접근성 확장하기
총론	공연시설	전시시설	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의 개념과 관련 용어들</li> <li>• 문화시설 접근성의 범위와 유형</li> <li>• 장애유형별 고려사항 및 접근성 향상 수단</li> <li>• 관람 여정에 따른 접근성</li> <li>• 참고 자료 목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 사용 안내</li> <li>• 공연 기획/제작 과정의 접근성</li> <li>• 홍보/마케팅 과정의 접근성</li> <li>• 방문/관람 과정의 접근성</li> <li>• 공연시설에서의 접근성과 안전</li> <li>• 피드백, 참고자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 사용 안내</li> <li>• 전시 기획 과정의 접근성</li> <li>• 전시 디자인/설치 과정의 접근성</li> <li>• 홍보/마케팅 과정의 접근성</li> <li>• 방문/관람 과정의 접근성</li> <li>• 피드백, 참고자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 사용 안내</li> <li>• 장애인과 예술교육</li> <li>• 예술교육 시 접근성 고려사항</li> <li>•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li> <li>• 전시/공연시설 교육 프로그램 사례</li> <li>• 체크리스트</li> </ul>	

### 총론 : 접근성 시작하기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의 총론에 해당하며, 접근성의 개념과 원칙,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의 활용 범위, 관람 여정에 따른 접근성 등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정리하여,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시설별 접근성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접근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혼동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지 않으셨나요?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접근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른 기술적인 접근성 수단들과 물리적인 환경조성뿐 아니라 서비스와 프로그램, 콘텐츠로서의 접근성, 경제적인 접근성과 문화적인 접근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접근성 스펙트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언급되겠지만, 접근성에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접근성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은 다소 이론적이고 설명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이드들의 배경지식과도 같은 역할이지만, 다양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야 하는 접근성 영역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공연시설, 전시시설 : 접근성 적용하기**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현장 운영 및 기획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문화시설 이용 과정뿐 아니라, 시설 이용의 전/후 단계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모든 관람 여정에 있어 주요한 접점에서의 접근성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객뿐 아니라 비장애인 관객, 창작자 등 다양한 시설 이용자들의 유형과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성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공연시설 접근성 가이드는 접근성 높은 공연을 위한 준비과정, 공연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의 접근성, 공연을 보러오는 과정과 공연장 안에서의 접근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고려사항들과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전시시설 접근성 가이드는 전시기획 단계에서의 검토 사항들, 장애유형에 따라 전시 감상을 돕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전시공간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전시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단계부터 전시장 내에서의 접근성과 비대면 접근성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 접근성 확장하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시설을 특정하기보다, 유형별 프로그램에 따른 고려사항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흐름에 따라 기획단계, 홍보·모집 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접근성에 대한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교육대상의 인원 규모, 운영 기간, 교육대상의 구성과 장애유형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접근성 고려요소와 참고 사례들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공연/전시시설 나아가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접근성 가이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성을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초기 기획 과정

공연/전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접근성을 적용하고자 고민하며, 기획회의를 열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 본 가이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연/전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접근성의 수준과 방식, 논의 단계와 내외부 관계자들의 참여 범위 등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과 협력관계, 기간과 예산까지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성 적용과 관련한 내용과 목표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문서로 다듬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관객 및 참여자를 맞이하는 현장

공연/전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관객들과 참여자들을 맞이하게 되는 각 시설별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과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이 작성될 경우, 기본적인 안내와 상황대처에 대한 태도 등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 박물관/미술관의 도슨트와 안내 담당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의 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설명을 위한 자료로도 가이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위한 설명/교육 자료

더 잘 준비된 접근성을 기획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나 행정 담당부서의 협조, 외부 관계자들의 참여시기 및 방법 등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외부뿐 아니라 내부 담당자들에게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이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접근성 가이드를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

당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 방법들도 필요하지만 많은 문화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도와 성과, 때로는 실패의 사례들이 축적되고 공유되면서 더 나은 가이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접근성 가이드가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살아있는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더 넓은 범위를, 또는 더 깊은 내용들을 담아내는 가이드가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인 접근성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접근성이란 무엇인가

먼저, 접근성 관련 담론들과 주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가. 접근성의 개념

### 접근성(Access)과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접근성(接近性)’은 주로 물리적 차원에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의 입지가 좋다는 의미로 ‘접근성’이란 표현이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에서 ‘접근성’의 의미는 이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접근성은 Access와 Accessibility, 두 개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Accessibility’는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혹은 무언가를 사용하기 쉬운’이라는 의미로 공간이나 장소,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뜻합니다.

[그림 1] 접근가능성과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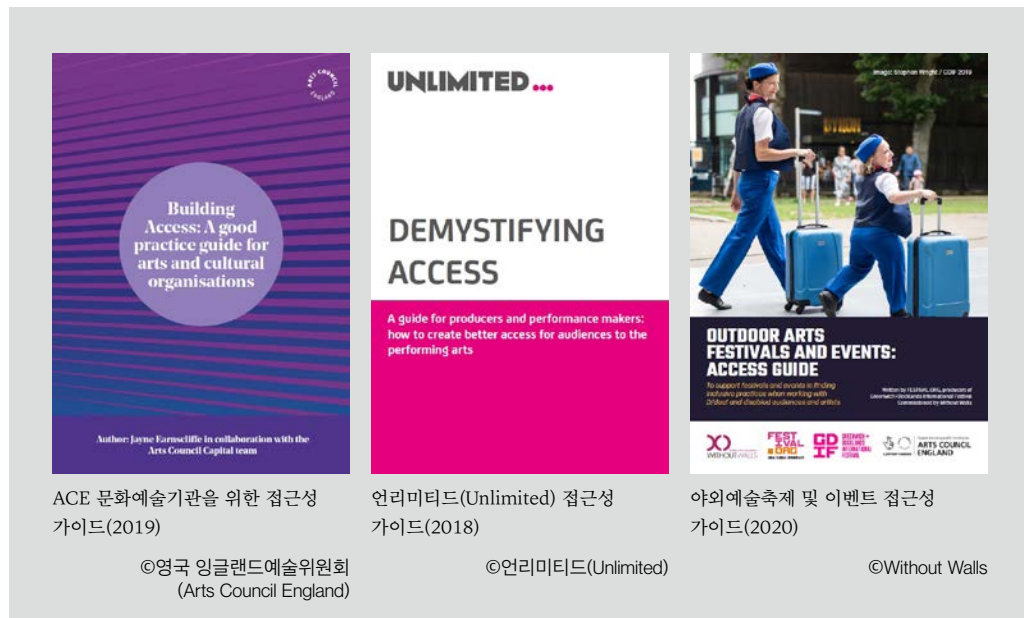


반면 ‘Access’는 조금 더 확장적 의미에서 물건이나 대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권리’라는 차원에서 정의되어 조금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대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해당 주체가 가지는 권리와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Access는 물리적 차원에서 어떤 장소에 닿기 쉽거나, 무언가를 얻고 사용하기 쉽게 하는 측면(접근 가능성, Accessibility)을 포함하되, ‘대상(주체)’의 개별적인 특성(장애, 젠더,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접근성 관련 가이드를 살펴보면 실제로 Accessibility와 Access를 혼용해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Accessibility가 물리적 환경 및 제품(콘텐츠)이나 서비스 차원의 접근가능성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Access의 경우 이를 포함하되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특성을 적극 포용하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성 의미까지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2] 영국 접근성 가이드 사례





##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진행한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는 장애인 접근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모든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또는 예술의 향유는 물론,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에서 창작활동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또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장애인 접근성은 이동접근성, 정보획득 용이성, 정서적 환경, 비용 등의 다양한 부분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어려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시설 접근성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합니다.

장애 원인을 살펴보면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고,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즉, 누구나 고령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혹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생애주기 중 신체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시설 접근성’이란 단순히 장애인만을 특별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이 충족되면 누구나 문화시설에서 향유, 창작활동이나 교육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시설 접근성의 핵심가치: 접근가능성과 포용성

앞서 접근성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동등한 기회,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접근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가치가 있다면 바로 ‘접근가능성’과 ‘포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물리적 환경의 접근 가능성으로 본다면, 장애, 인종, 젠더 등 다양한 이유로 나와 다를 수 있는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인식적 측면을 사회문화적 포용성(Inclusiveness)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전시, 교육 활동에 참여하려는 장애인 입장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접근성 관련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공연장, 전시장, 교육활동 장소 등 시설의 물리적 환경 차원에서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잘 구할 수 있는가, 방문했을 때 건물 현관의 경사로 유무, 장애인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용 관람 좌석, 휴게실, 시각 혹은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반영한 다양한 안내표지나 홍보물 등도 중요할 것입니다.

공연이나 전시, 교육활동에 참여할 경우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보조적 설비(자막, 수어통역, 점자안내문, 보조인력 등) 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해당 공간에서 이들의 개인적 경험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문화시설에서 개인의 경험이란 공간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활용하는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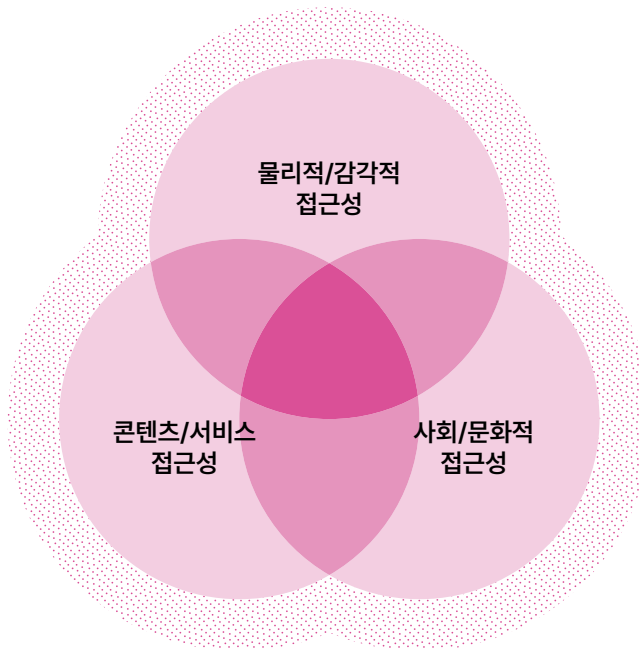
물리적 차원의 접근가능성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장소에서 ‘환영받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그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공간에서 느껴지는 태도, 정서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2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객 접근성’ 관련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정서적, 태도적 접근성’이 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물리적 접근성(62.5점), 문화적 접근성(61점)이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곧, 물리적 차원에서 공간을 비롯하여 공연, 전시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환대받을 수 있는 정서적 분위기나 태도가 문화시설 전반에 함께 장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에 있어 우리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이나 공연, 전시 등 콘텐츠와 서비스 관련 접근성뿐 아니라,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환대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성까지,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3] 접근성의 세 가지 층위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가이드에서는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를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의 세 가지 층위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콘텐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 중요도만큼 이미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 가이드에서도 물리적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적 접근성은 그 확장된 의미만큼이나 다양한 해석과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사회문화적 접근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개념과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콘텐츠·서비스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과 사회문화적 접근성을 포괄하며,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접근성 이슈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콘텐츠·서비스 접근성이 보다 유용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 나. 접근성과 관련한 용어들

‘접근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배리어프리’부터,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의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사회적 맥락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조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배리어-프리 디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를 개인적 비극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반대했던 퇴역군인, 전신노동자 등에 의한 1950~70년대 미국 장애운동의 역사와 연관이 깊습니다.

#### ※ 건축장벽 제거법(Architecture Barrier Act)

1950~1960년대 미국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캠페인이 시도되었습니다. 그 결실로 미국은 1961년 세계 최초로 장애인 접근성 표준이 발표되었고, 1968년 미국 국회는 ‘건축장벽 제거법’을 제정하여 ‘모든 공공건물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축된 건물은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김 닐슨, 김승섭 역, 2020 『장애의 역사』, pp.290-291

글로벌 차원에서 ‘배리어-프리’라는 표현은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건축학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리어프리란 건축물과 주택 등 생활환경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불편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설계기준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배리어-프리’ 개념은 건축과 생활환경에서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벽,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까지도 허물자는 의미에서 확장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배리어프리 공연’, ‘배리어프리 전시’, ‘배리어프리 영화’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연이나 전시, 예술교육, 영화 등 문화적 자원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북미지역 중심이되, 국제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  
라  
비  
라

###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1985년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Ronald L.Mace)가 주창한 개념으로 초창기에는 ‘추가 비용 없이, 또는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이나 시설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건물과 시설을 매력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Mace, R. (1985) Universal Design: Barrier-Free Environments for Everyone’, Designer’s West 33(1). 147-152.

이후 유니버설 디자인은 건축물과 환경을 넘어서서 제품과 서비스 영역까지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은 ‘개조나 특수설계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 개념으로 통용됩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건 제품과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장애인 시설 또는 편의 제공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거하여 편의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개념으로, 1995년 영국의 로저 콜맨(Roger Coleman)이 처음 주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1960년대부터 영국 내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맥락, 이후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 및 관련 법 제정(장애차별금지법, 1995; 평등법, 2010)과 맞물리면서 특정한 인구집단(노인, 혹은 장애인)을 포함하되, 가능한 많은 이들의 니즈를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디자인의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그 개념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Clarkson & Coleman (2013), History of Inclusive Design in the UK, p. 1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원류로는 1963년 장애당사자였던 셸윈 골드스미스가 발간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Disabled)』이 지목됩니다.

초창기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경우 장애인과 고령자를 고려했던 접근은 그 자체로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인과 노인을 주류 집단과 분리·구분되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소수약자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념의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 영국에서 활용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초창기 노인과 장애인을 인구의 하위집단으로 설정하고 접근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sup>2</sup> 오히려 노인과 장애인을 주류사회와

2. Clarkson & Coleman(2013) History of Inclusive Design in the UK, Applied Ergonomics, 1-13. p.1

통합하되, 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서 명시된,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장애, 나이, 성별, 성적 지향성, 인종 등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리와 차별의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평하고, 자신있게,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sup>3</sup>

이런 점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명확한 차별점을 갖습니다.

신체적, 지적,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면,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이, 젠더, 이동성, 인종, 사람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건축 및 공간환경 위원회(CABE)가 제시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 | [표 2] 인클루시브 디자인 원칙 |

구분	인클루시브 디자인 원칙
포용하는(inclusive)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쉽게, 존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호응하는(responsive)	사용자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고려할 것
융통성 있는(flexible)	사용자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편리한(convenient)	많은 노력이나 분리 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수용하는(accommodating)	나이, 젠더, 모빌리티, 인종 혹은 다양한 환경적 조건을 수용할 것
환대하는(welcoming)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는 장벽이 없어야 할 것
현실적인(realistic)	하나의 해법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이들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해법을 제공할 것

3. Design Council (2023) <https://www.designcouncil.org.uk/who-we-are/our-foundations/equality-diversity-inclusion/>



따라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사용자 집단의 개별적 니즈, 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가능한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을 주요한 가치로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사회통합적 국가정책과 연동하여 물리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모든 공공장소와 디지털 영역을 비롯,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말하는 ‘보편성’은 평균적인 사람(average person)을 상정하고 접근하지만, 현실에서 평균이란 존재할 수 없기에 보통 사람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유니버설 디자인은 예외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sup>4</sup> 반면,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오히려 이러한 ‘예외적인 케이스’를 보다 세심히 살펴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sup>5</sup>

### 유사개념들의 특징과 차별성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유사용어인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을 살펴보면 각각의 미세한 차별성은 있지만 유사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유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 용어 모두 태동이 된 배경에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의제가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건축, 주거 등 생활환경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장벽 없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와 긴밀히 연동되는 가운데 발현, 발전되어온 맥락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이들 각각의 유사용어가 다루는 ‘접근성’에 대한 의미 역시 확장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건축이나 생활환경,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에서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사회문화적 접근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포함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포용하며 확장되어 온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NHS 홈페이지 'What is inclusive design and why is it important' 참조 <https://digital.nhs.uk/blog/esign-matters/2023/what-is-inclusive-design>

5. <https://digital.nhs.uk/blog/design-matters/2023/what-is-inclusive-design>



| [표 3] 접근성 관련 유사개념 요약 |

구분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인클루시브 디자인 (Inclusive Design)
대상	장애인	장애인에서 출발 고령자, 어린이 등 신체 기능적 약자를 포괄	장애인, 고령자에서 출발, 현재는 다양한 사회구성원 포함
용어의 태동	1950년대 미국, 1968년 건축장벽제거법 명시 1974 UN ‘장벽없는 건축설계’ 보고서	1985 로널드 M. 메이스	1995 로저 콜맨
주요지역	미국, UN	미국	영국
추구가치	공평한 접근성 향상	보편성, 접근성 향상	다양성, 사회통합, 평등
목표	건축, 주거 등 생활환경 포함, 문화자원에서의 접근성 향상	건축, 생활환경 및 제품, 서비스에서의 접근성 향상	건축, 생활환경, 제품,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문화다양성 포용
접근성의 적용범위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접근성 및 사회문화적 접근성
특징	장애인 중심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를 포함한 접근성 향상	장애인 포함,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개별적 다양성에 중점을 둔 접근

앞서 우리는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이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서서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사용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용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활용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경우, 단순히 건물이나 환경에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용자 입장의 개별적인 요청을 반영하고, 이를 포용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에서 접근성의 개념을 3가지 관점(물리적 접근성, 서비스·콘텐츠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의 경우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접근성을 고려한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 접근성과 관련된 용어들

현장에서 자주, 쉽게 사용하지만,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입니다.

**농인/청인** :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수어에 기반한 농문화를 영위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며, 농인에 대비하여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하는 사람들을 청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맹/저시력(약시)** : 시각장애는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전맹과 시력이 매우 낮은 저시력(약시)로 구분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는 전맹인 경우보다는 저시력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발달장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ODA(코다)** : ‘Children of Deaf Adults’의 약어로 농인부모의 자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 모두 해당되지만, 보통 청인 자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언어를 음성언어로 할지, 수어로 할지 선택에 따라 농문화/청문화의 정체성을 띠게 됩니다.

**문자통역** : 음성언어를 실시간으로 타이핑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음성언어를 문자로 읽을 수 있도록 전송해 주는 통역 방식입니다. 흔히 아는 자막과 유사하며, 스크린이나 핸드폰 화면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막해설** : 작품에서 이루어지는 청각 정보를 시각화 또는 문자화 하는 작업으로, 작품의 내용이나 상황에 맞춰 글자의 색이나 크기를 디자인하거나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등 의도와 의미를 담아 전달합니다.

**화면해설** : 전맹 또는 저시력(약시)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는 내용을 음성언어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화면의 배경, 분위기,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 그래픽 등 정보를 전달합니다.

**음성해설** : 공연 무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해설하여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시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작품이 놓인 주변 환경 등에 대한 해설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쉬운 글쓰기** :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는 정보 약자를 위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공연을 소개하거나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하는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투어(촉각투어)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연의 무대세트, 의상, 소품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공연 전에 해설과 함께 진행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공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술관/박물관의 작품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지도 : 문화시설 내에서 영역별 특성을 조용한 공간과 시끄러운 공간, 혼잡한 공간, 냄새가 강한 공간, 자연채광이 있는 공간과 어두운 공간 등으로 구분, 표기하여 방문객들이 미리 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열린 객석(릴렉스드 퍼포먼스) : 공연장 내 갑작스러운 소리와 불빛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객을 고려하여, 공연 중에도 어느 정도 조명을 켜두거나 적절한 수준의 음향을 고려하며, 관객들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허용하는 공연의 형태입니다.

## 다.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와 흐름

‘접근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즉 우리의 관점에 대한 주요한 변화 과정을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해 있습니다.

###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이란 장애를 개인이 가진 ‘결핍’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나 동정의 대상이자 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즉 비장애인 기준의 ‘정상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장애를 신체나 정신 일부의 ‘오작동’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을 무언가 교정되거나 치료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독립성, 선택권,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서 인식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영국과 미국 등 장애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의료적 모델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제기되었고,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를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애인이 배제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권력관계 및 불평등한 환경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60~70년대 장애차별에 반대하는 시민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관점을 채택하여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바라보는 관점은 유엔총회에서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objects)’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subjects)’로서 규정하고,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이자 자신의 자유롭고 인지된 동의에 기초하여 삶을 결정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의료적 모델’과의 결별이자, ‘사회적 모델’에 대한 공식적인 비준이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을 비롯, 영국이나 미국, 한국, 일본 등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사회적 모델’로서 장애를 바라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접근성을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독립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며,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이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 교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장애인 접근성 논의의 역사**

국내 장애인 접근성 관련 논의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특히 공공시설에서의 물리적 접근성 및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편의설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쇼핑카트 등)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경우, 제24조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제18조에서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의 차별금지가 명시되었고, 관련 시행령의 경우 제15조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물리적 시설, 설비, 보조인력 배치, 보조장비 제공, 정보 제공 등)이 명시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에 관련하여 기존 논의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인을 문화향유의 대상이 아닌, 문화창작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비장애예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 창작 및 실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장애인 및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혹은 문화향유의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장애인 접근성 관련 논의의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 역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에 제시된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록 별도의 ‘접근성’ 관련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을 표방하는 ‘모두예술극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관광객 대상 공연장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이 공연장에는 장애예술인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설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연장 및 배우 연습실 등 주요시설이 있는 바닥에는 휠체어 이동을 위해 각 층의 바닥 단차를 없애 평평하게 하였고, 높이 차이가 있는 곳은 가파르지 않은 슬로프를 설치했습니다.

건물 내 곳곳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구, 화장실, 공간 안내 표지판 등 안내가 필요한 곳에도 모두 점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은 층마다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접근성 매니저’가 상주하며 모두예술극장에서 작업하는 장애예술인뿐 아니라, 장애인관객들도 공연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매니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연장 객석 2층에 위치한 조정실은 단차가 없어서 휠체어 사용자도 불편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 최근 조정실 영역 내 자막해설/음성해설 등 접근성 오퍼레이터 공간 확보와 휠체어 사용자의 조정실 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예술극장의 조정실 사례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 ※ 모두예술극장 주요 시설

[그림 4] 모두예술극장 주요 시설



모두예술극장 공연장 내부 전경



모두예술극장 공연장 라운지 전경



모두예술극장 공연장 조정실 내부



모두예술극장 공연장 분장실 내부

(좌상, 우상, 우하) ©모두예술극장  
(좌하) ©메타기획컨설팅

모든 장애예술인이 직접 창작하고 실연하는 공연이나 전시, 교육활동까지 기획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 관객이 문화시설을 방문했을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의 모든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일 겁니다.

앞서 인용한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고, 인력지원(20.1%), 이동지원(16.5%),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11.6%), 장애인 편의서비스 마련(10.6%)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개선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문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인력지원(21.3%), 이동지원 (17.3%),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12.8%), 장애인 편의서비스 마련(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배경 등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에서는 문화시설 운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관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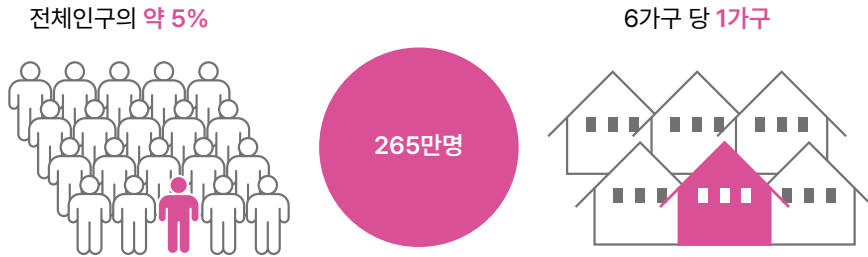


## ※ 국내 장애인 현황

### • 국내 장애인 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약 265만 명으로 파악되며(등록 장애인 기준), 전체 인구 약 5,144만 명의 약 5%가 장애인입니다. 즉 100명 중 5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6~7가구당 1가구에 장애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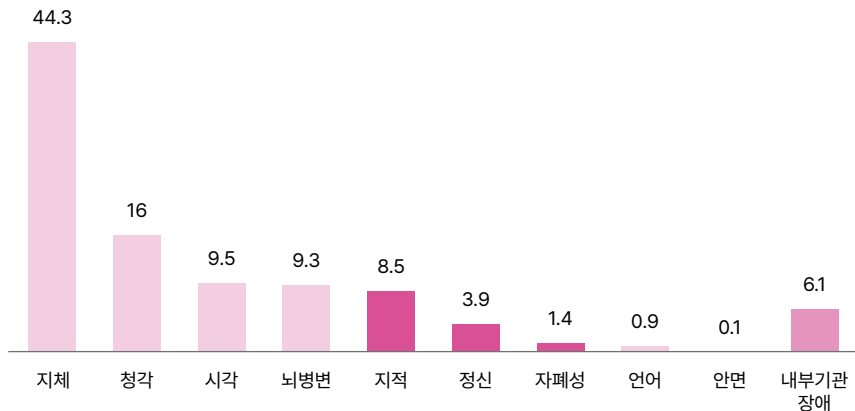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등록장애인 수(2023 장애통계연보 기준)



### • 국내 장애유형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으로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 지체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44.3%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상이한 장애유형을 가진 ‘중복장애인’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약 6.4%입니다. 문화예술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의 장애 이외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방문객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적인 수치이니 현장에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림 6] 국내 장애유형 현황





## · 장애 유형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15종류의 법적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으로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뉘며 ‘신체장애’의 경우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외부기능 장애’와 호흡기 장애, 심장 장애 등 ‘내부기능 장애’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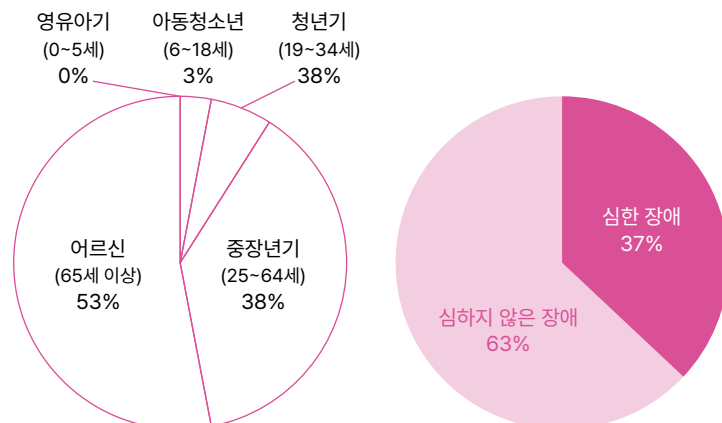
[그림 7] 장애 유형 구분

<b>외부기능 장애</b>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뇌병변장애 · 안면장애
<b>내부기관 장애</b>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뇌전증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장애
<b>정신적 장애</b>	· 정신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 장애인 연령 분포 및 장애 정도

연령층으로는 전체 장애인의 53%가 65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장애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비율은 약 22%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로 보면 심한 장애는 전체의 37%, 심하지 않은 장애는 전체의 63%입니다.

[그림 8] 장애인 연령 분포 및 장애 정도









## 2.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 가이드

앞서 접근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와 주요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최근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 가이드에서 다루게 될 보다 구체적인 내용 구성에 대한 체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아니 어쩌면 현재에도, ‘장애인 접근성’은 주로 ‘건축적’ 차원에서 물리적 접근성으로 치환되어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개념들이 주로 공간과 연계되어 사용되었던 것도 주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개선은 무척 중요한 과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비단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서비스 접근성, 웹 접근성, 의사결정 접근성 등 훨씬 다양한 접근성 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성의 종류 또는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접근성의 서로 다른 유형들이 문화시설 관람의 여정과는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우터  
리미트

이를 통해 문화시설별 접근성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프레임워크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 문화시설 접근성의 범위와 유형

접근성의 범위와 유형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접근성에 고민을 시작했던 유럽,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른 여러나라의 접근성 사례들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모든 범위와 유형의 접근성을 다룰 수는 없지만, 관련된 큰 그림 및 전체 구성을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접근성의 단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UN과 유럽의회에서 제시한 4가지 종류의 접근성

포용적 사회 관점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다루어온 유럽 의회는 2015년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ulture, tourism,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유엔의 법제도적 근거와 함께 유럽연합의 법제도적 근거, 유럽연합 가입국가들의 모범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림 9] UN 발간 접근성보고서



©The Council of Europe

훨씬 구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성 정책은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동 협약의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접근성의 유형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시설/서비스’에 대한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접근성 영역별 주요 이슈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 의무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 [표 4] 유럽 의회에서 주목하는 장애인 접근성 |

구분	주요 이슈	국가의 개선 의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장애물 제거	대중에게 개방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공표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교통에 대한 접근성	이동성	대중에게 개방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 기관들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모든 측면들을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함  장애인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함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	이해/안내 지원/매개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이나 시설들에 점자로 된 안내판과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안내판을 설치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기준/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민간영역 견인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이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 판독기, 전문적인 수화통역사 등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현장 지원과 매개자를 제공해야 함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지원과 도움도 제공해야 함
문화, 관광, 체육, 여가 활동의 현장에서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새로 짓는 시설들과 서비스들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에 조응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설계되어야만 한다.		
기존 시설들과 서비스들에서 확인되는 장벽들은 급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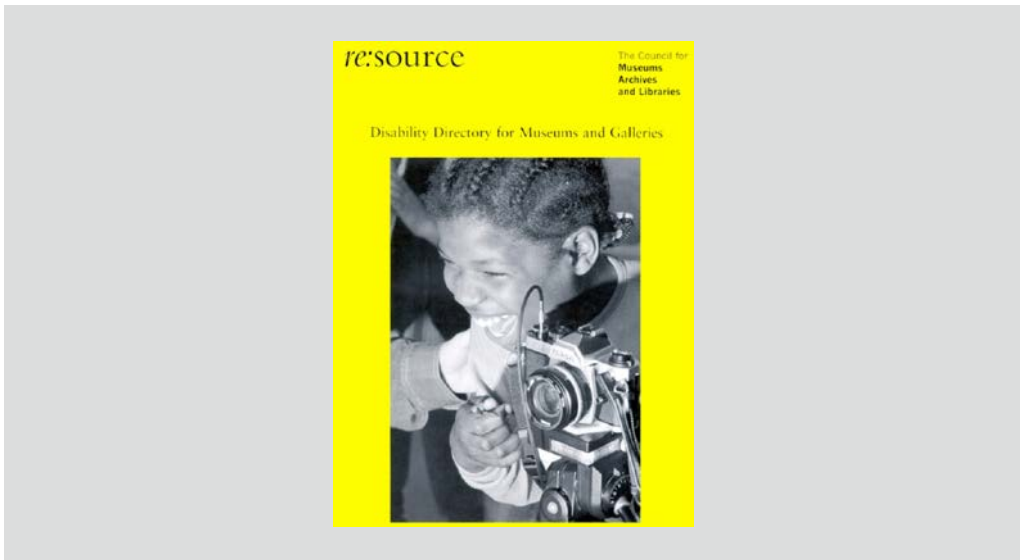
##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위원회가 제시한 접근성의 8가지 유형

접근성에 관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을 고민해온 영국에서 가장 구체적인 접근성 정책을 제시한 사례 중 하나로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위원회(2001)에서 발간한 <Re:source-Disability Directory for museum and galleries>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0년 4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위원회(MLA)가 새롭게 발족하면서 문화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야심찬 접근성 정책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발간된 이 보고서에서는 접근성과 관련한 6가지 이슈를 다음과 같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장벽’, ‘다양성’, ‘포용적 실천’,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 ‘책임성’이 바로 그것인데, 접근성 정책을 단순히 접근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등의 가치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림 10] MLA 발간 접근성보고서



©The Council of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이 여섯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접근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쟁점과 적용 가능한 대안을 살펴보는 ‘접근에 대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LA는 다음과 같은 8개의 접근성 장벽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sup>6</sup>

6. [표 5]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경 박사가 번역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 [표 5]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위원회에서 제시한 8가지 유형의 접근성 |

구분	고려사항
물리적 접근성	우리의 건물은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가?
감각적 접근성	시각 또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시와 이벤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지적 접근성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경제적 접근성	입장료가 수입이 낮은 사람들의 방문을 어렵게 하는가? 판매되는 아이템들은 가족들이 소비할 만한 수준의 가격인가?
정서적/태도적 접근성	우리 기관은 새로운 방문자를 환대하는 환경인가? 우리 직원은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	우리 기관은 잠재적인 새로운 관람객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우리의 홍보 노력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관람객에게 닿고 있으며, 그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문화적 접근성	컬렉션과 전시 디스플레이, 이벤트들이 우리의 타겟 고객인 관람자의 관심사와 삶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가?

접근성을 장벽의 종류와 연관하여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였으며,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제시된 것이기는 했지만 문화시설 전반에서 적용될 수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8가지 유형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또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내 연구자료에서 제시하는 접근성의 4가지 유형

위와 같은 해외 보고서들도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국내에도 좋은 연구, 보고서, 자료들이 많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하는 자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4개의 대분류로 유형화하고, 세부적으로 11개의 요소를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박물관·미술관의 접근성’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시설 전반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분류체계이며, 이를 통해 각 시설별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표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의 장애인 접근성 |

접근 장애 요인			장애인 접근성 유형
대분류			대분류 세부요소
물리적 접근 (Physical access)	+	공간과 시설(건물)	이동 편의성
감각적 접근 (Sensory access)		온라인 공간	감각적 접근성 웹 접근성
지적 접근 (Intellectual access)	+	인력	서비스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웹 접근성
경제적 접근 (Financial access)			
정서적/태도적 접근 (Emotional/Attitudinal access)	+	컬렉션	지적 접근성 정서적 접근성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Access to decision-making)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 (Access to information)	+	관람객	정서적 접근성
문화적 접근 (Cultural Access)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방향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vi

대분류 상에서 첫 번째 유형으로 제시된 것은 ‘물리적 접근성’으로, 장애인에게 ‘물리적 접근의 장벽’이 우선 해소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의 장벽은 ‘감각적 접근’과 ‘이동 편의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시각 감각을 전제로 하는 ‘웹 접근성’도 물리적 접근성 해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 ※ 웹 접근성

21세기에 들어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면서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시각, 청각, 이동성, 인지 영역 등에서 웹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 ‘화면확대 도구’, ‘음성인식’, ‘키보드 오버레이’ 등의 보조 기술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비스 접근성’은 경제적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그리고 웹 접근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서비스 접근성의 하위로서 웹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에 포함된 웹 접근성과는 달리 정보의 습득과 선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프로그램 접근성’은 문화시설별 주요 기능과 가장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박물관·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전시와 교육, 그리고 컬렉션 수집/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각 기능에 대한 사용자 또는 관람객의 정서적, 지적, 의사결정 접근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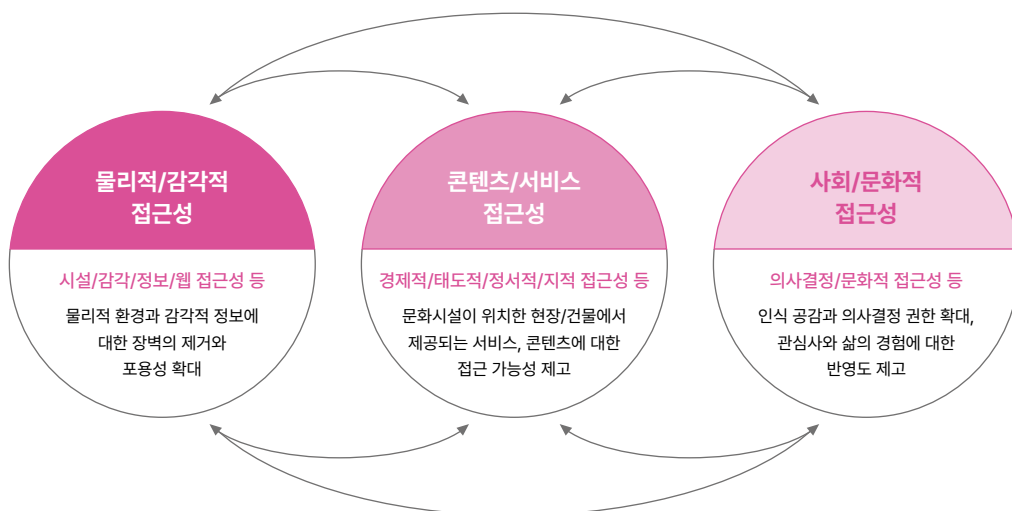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문화적 접근성’은 MLA(2001)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장애인의 관심과 삶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정서적으로 장애인들이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정서적 접근성) 및 장애인들이 가진 관심사와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의사결정 접근성)으로서 문화시설이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나.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접근성 유형

###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 가지 접근성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접근성의 각 유형들 간의 차별성과 상호연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본 가이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접근성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림 11]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접근성의 세 가지 유형



문화시설이 자리한 현장 및 시설에서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와 콘텐츠 향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물리적 환경과 감각적 정보에 대한 장벽의 제거와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물리적·감각적 접근성과 보다 큰 차원에서 인식 공감과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관심사와 삶의 경험에 대한 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회적·문화적 접근성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각각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콘텐츠 접근성이 물리적·감각적 접근성과 사회적·문화적 접근성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서비스·콘텐츠 접근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접근성을 앞서 다룬 여러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7] 접근성 유형 구분 및 세부 유형별 주요 내용 |

유형 구분	세부 유형	주요 내용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구성 및 구축)	물리적 접근성	문화시설 현장 및 건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동 가능성 차원에서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 (시설 접근성)
	감각적 접근성	사전 정보, 현장 안내, 콘텐츠 향유의 전제 조건으로서 시청각적 다양성 차원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 (감각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웹 접근성)
서비스·콘텐츠 접근성 (공감과 소통)	서비스 접근성	사전 단계-관람 단계-사후 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주요 고객으로서 포함 또는 배제 여부 (경제적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웹 접근성)
	콘텐츠 접근성	현장, 특히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활동(전시, 공연 등)의 주요 향유자로서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 (정서적 접근성, 지적 접근성)
사회적·문화적 접근성 (참여와 재현)	사회적 접근성	파트너십,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서 문화시설의 운영 체계와 과정에서 거버넌스 참여 여부 (의사결정 접근성)
	문화적 접근성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재와 스토리, 양식 등에서 경험 및 관심사의 반영 여부 (문화적 접근성)

각각의 유형은 다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6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성되는 체계입니다. 이 가이드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선행 연구 자료들의 접근성 분류를 수용하되,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에 적합한 세부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를 기반으로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경험이 축적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새로운 접근성 구성 체계가 도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 1)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과 감각적 접근성은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콘텐츠 접근성과 사회/문화적 접근성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문화시설이 위치한 장소적 특성, 공간 구성 등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 시설/감각/정보/웹 접근성 등

물리적 환경과 감각적 정보에 대한 장벽의 제거와  
포용성 확대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각 문화시설이 가진 서비스/콘텐츠적 강점들과 신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문화시설 현장 및 건물 내외부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 차량/보행 등 이동 가능성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각적 접근성은 문화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전 정보(온/오프라인)와 현장에서의 안내, 시청각 및 촉각 등 콘텐츠 향유를 위한 다양한 보조장치 등을 통한 접근성을 포함합니다.

## 2) 서비스·콘텐츠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과 콘텐츠 접근성은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경험하는 여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지 좋은 공연과 전시를 소개하는 것 이상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 경제적/태도적/정서적/지적 접근성 등

문화시설이 위치한 현장/건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제고

단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보조장치 등을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장애를 가진 관객/이용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진심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서비스 접근성은 문화시설의 관람 및 프로그램 체험 단계뿐 아니라 관람/체험을 위한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의 접근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화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서비스를 비롯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이용자 경험, 키오스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콘텐츠 접근성은 공연/전시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자원을 보다 많은 관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 오던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위한 과정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 3) 사회적·문화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성과 문화적 접근성은 물리적/감각적 접근성과 서비스/콘텐츠 접근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전개될 수 있는 다소 높은 수준의 접근성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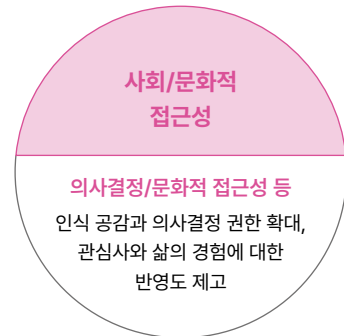
문화시설 현장에서 관객/이용자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더라도,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조직과 기관의 비전, 정체성과 관련되어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접근성은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자문/운영 위원으로 외부의 접근성 전문가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문화적 접근성은 문화시설에 이루어지는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주제와 스토리, 표현 방식들이 관객/이용자의 관심사, 삶의 경험에 비추어 얼마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연/전시시설, 예술교육 접근성에 대한 개별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세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접근성 유형은 크게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서비스·콘텐츠 접근성, 사회적·문화적 접근성의 세 층위로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접근성 유형은 명확하게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전시와 공연 등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향유 현장에서의 정서적 접근성과 지적 접근성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제작 단계에서 감각적 접근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세 가지 접근성은 서로 간에 선후나 우열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화시설은 물리적·감각적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서비스·콘텐츠 접근성이 매우 부족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문화시설은 사회적·문화적 접근성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물리적·감각적 접근성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접근성 유형 모두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국내 공공 문화시설의 업무량과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또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에서의 접근성과 환대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에서는 접근성과 환대 차원에서 해야 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접근성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한글 번역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평범하게 행동하고, 다른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장애가 있는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톤을 사용하고, 결코 유치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말을 걸지 마세요.
- 동반자나 통역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세요.
- 불가능한 것보다는 가능한 것에 집중하세요.
- 자연스럽게 말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시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도 시력 관련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걸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 방문객의 장애 유형에 대해 절대 묻지 마세요.
-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지 항상 물어보세요. 그들의 팔을 잡지 마세요.
- 휠체어에 탄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 이동장애가 있는 방문객일 경우

- 눈높이에서 소통하세요.
- 휠체어를 탄 방문객과 교류할 때는 안내 카운터 뒤에서 나오세요.
- 휠체어, 지팡이, 보행 보조기는 모두 사람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이동 보조기구를 만지지 마세요.
- 휠체어 사용자가 대화에 참여하기 용이한 자세를 취해 주세요.

####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낮은 방문객일 경우

-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여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세요. 말 없이 떠나지 마세요.
- 시력이 낮은 사람은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해 주세요.
-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과 안내견을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주세요.
-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 청각장애가 있거나 난청이 있는 경우

- 무언가 말하거나 보여주고 싶다면 손을 흔들거나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의를 집중시키세요.
- 방문자와 대화할 때 눈을 마주쳐 방문자가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입술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을 입에서 멀리 두세요. 말하는 내용의 20~40%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통역사가 있더라도 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걸어주세요.
-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되 지나치게 과장하지 마세요.
- 표정과 몸짓을 사용해 주세요.
- 방문자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면, 글로 적어서 보여주세요.
- 창문이나 조명을 등지고 서지 마세요.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인내심을 가지고, 방문자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그렇다고 알려주세요. 다 알아들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 따뜻하게 웃으세요. 당신의 표정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긴장하지 마세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환영하는 인사를 해주세요.
- 간단한 언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되, 방문자가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들이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그들의 의견을 요약해주세요.

###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경우

-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 문장이 너무 길지 않고 명확하도록 유의하세요.
-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 상대방의 몸을 만지지 마세요.
- 시설 내 공간 중 조용한 공간과 복잡한 공간이 어디인지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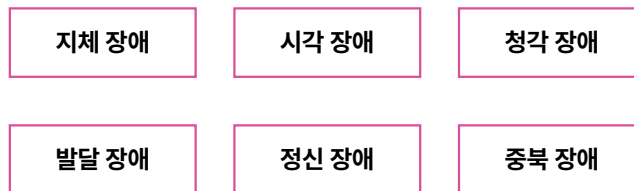


### 3. 장애유형별 고려사항과 접근성 향상 수단들

#### 가. 6가지 장애 유형과 특징

본 가이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구분하는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공연/전시시설 등 주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접근성의 관점에서 6개 장애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림 12] 6가지 장애 유형



지체장애 : 몸의 움직임 등 신체적 어려움에 따라 이동지원 등 필요

시각장애 : 시력의 상실 여부에 따른 전맹 또는 저시력자(약시) 등

청각장애 : 청력의 상실 여부에 따른 농인 및 난청인 등

발달장애 : 사고나 기억·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자폐성 및 지적 장애

정신장애 : 정신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장애(조현병, 반복성 우울 등)

중복장애 :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 장애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기준에 따른 것이며,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중복 여부 등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 6가지 장애 유형별 특징

### 지체장애

지체장애도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이 있으며 휠체어, 의수/의족, 목발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물리적인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는 곳은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외부 접근로에 단차가 있거나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2cm 이하만 허용이 가능하고, 건물 내부의 경우 단차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cm의 턱만 있어도 그 턱이 있는 곳에 안전하게 올라서기 힘듭니다. 무리해서 턱을 넘다가 휠체어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비장애인 성인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눈높이나 가구/기구 등이 너무 높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의 휠체어 중에 전동식 혹은 모터가 달린 휠체어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충전할 수 있는 곳이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의자형 휠체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침대형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44%가 지체장애인이며 이들 중 약 20%가 정도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빛과 색, 초점과 정도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저시력자부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인까지 다양합니다. 저시력자의 경우에도 볼 수 있는 정도가 서로 다 다릅니다.

시력이 저하 되어 물체의 구분이 어려운 시력장애, 색에 대한 인지가 다른 색약/색맹, 시야가 좁아진 시야장애, 양쪽 시력이 현저히 낮은 양안장애 등 종류만 해도 7가지가 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주로 흰 지팡이라고 불리는 긴 막대 형태의 지팡이로 지형을 파악하며 이동합니다. 또한 안내견과 함께 이동하기도 합니다. 안내견과 동행할 때 안내견은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가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간식을 주는 등 안내견의 관심을 끄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자의 경우 각 나라별로 점자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점자규정이 점형, 규칙, 규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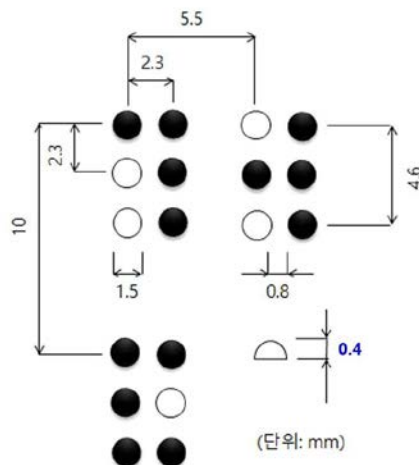
저시력자의 경우 간결하고 분명한 서체의 큰 글씨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모두가 점자를 사용하지는 않으며, 전맹은 약 10% 정도로 소수입니다. 큰 글씨나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그림 13] 한국 점자 사용 규격

### 한국 점자 사용 규격

- 가. 점 높이: 최솟값 0.4mm 최댓값 0.9mm
- 나. 점 지름: 최솟값 1.5mm 최댓값 1.6mm
- 다. 점간 거리: 최솟값 2.3mm 최댓값 2.5mm
- 라. 자간 거리:
  - 종이, 스티커: 최솟값 5.5mm 최댓값 6.9mm
  - 피브이시(PVC): 최솟값 5.5mm 최댓값 7.3mm
  -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최솟값 5.5mm 최댓값 7.6mm
  - 기타 재질: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
- 마. 줄간 거리: 최솟값 10.0mm 최댓값 정하지 않음



## | [표 8] 저시력자의 시야 예시 |



[백내장]



[터널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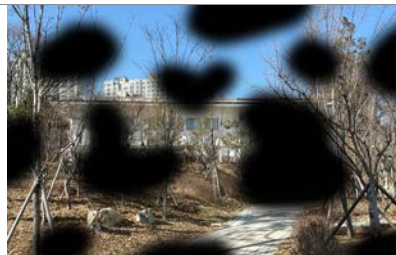


[황반변성 유형]

[황반변성 유형2]



[복시]



[당뇨망막증]



[시야장애]



[비문증]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 청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 농인과 난청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농인의 경우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쓰는 청각장애인이며 난청인의 경우는 ‘한국어(음성어)’를 제1언어로 쓰는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수어는 수화라는 방법으로 구사되는 언어체계를 뜻하며 나라마다 사용하는 수어가 모두 다릅니다.(영어 수어의 경우도 미국 수어, 영국 수어, 호주 수어가 다 따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한국수어는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난청인의 경우 상태와 청력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사용하여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지만 명확하고 깨끗한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더라도, 구화나 독순(입술의 움직임을 읽는 것)으로 소통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막이나 문자 통역, 필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청각장애인 중 ‘음성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음성언어’와 함께 수어, 입모양으로 소통하는 방식(구화), 글로 소통하는 방식(필담) 등 복합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수어를 통해 소통하는 비율은 전체 청각장애인 중 약 12~20% 정도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과도 차근차근 대화나 글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그림 14] 농난청인 주요 의사소통 방법



**말·구화**  
입술읽기(Lip reading)



**수어**  
한국수화언어(Korean sign language)



**촉수화**  
Tactile Sign



**필담**  
Writing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 [표 9] 농난청인 의사소통 지원 보조공학기기 |



[보청기]



[인공와우]



[음성인식]



[수어 영상전화기]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발달장애 / 정신장애

이 가이드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발달장애 유형으로 봅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다양하고 사람마다 정도나 상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부분을 설명하자면, 언어적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이 많은 곳, 낯선 사물에 공포 및 거부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 행동을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과 빛에 예민한 부분이 있으며 장난감이나 특정 사물에 대한 느낌, 촉감 등에 반응하고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과 행동 패턴들을 보입니다.

사람과 소음/소리가 적은 조용한 공간(릴렉스 존)에서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제공해 주면 됩니다.

소통을 위해 되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쉬운 언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닌 생활 연령에 맞는 태도와 행동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아  
다  
다

## 중복 장애

중복장애는 다른 유형의 장애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중복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 15개 장애유형 중 주장애와 부장애 1개(주장애×부장애1), 부장애 2개(주장애×부장애1×부장애2), 부장애 3개(주장애×부장애1×부장애2) 등으로 구분합니다.

주장애유형을 기준으로 중복장애인 비중을 살펴보면 주장애가 청각인 경우가 전체 중복장애의 약 23%로 가장 많으며 지체장애가 약 18% 등으로 나타납니다.

※ 국가별로 다양한 장애 구분 범주

• 보다 세부적인 장애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국내의 장애 유형보다 훨씬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암, 에이즈, 알코올 중독도 장애로 간주하고 있으며 당뇨(호주), 알레르기(스웨덴)를 장애로 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 사회적 장애를 포함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와 일시적 언어장애까지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기 때문에, 장애 비율이 국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Ⅰ [표 10] 장애인복지법의 15가지 장애 유형 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1.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2.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3.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4.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5.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6.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장애	7. 신장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8.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9.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10.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11.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12.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13.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14. 자폐성장애	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15.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나. 문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접근성 수단들

공연, 전시 등 문화시설에서 이용객의 관람을 돕기 위한 접근성 수단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각 시설별 접근성 수단들에 대해 소개와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 등은 공연시설/전시시설 접근성 가이드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쉬운 글/글쓰기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말합니다. 쉬운 표현과 간결한 구조로 된 글로 이해를 돕는 이미지, 가독성이 좋은 디자인, 글씨체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많은 사람이 정보 접근에 수월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연/전시 내용을 전달하는 팜플렛이나 홍보문구 등 다각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2) 수어 통역/수어 해설/수어 도슨트

수어 통역 및 해설은 음성언어/청각 정보를 시각 언어로 통역 및 해설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수어’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영어권의 외국인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어권의 수어가 필요합니다.

수어 통역사가 직접 현장에서 통역해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녹화한 수어 해설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 3) 음성해설/화면 해설(오디오 가이드)

음성해설은 시각적 대상이나 상황의 주요 요소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화면 해설은 모니터나 화면의 장면들의 상황과 주요 요소들을 언어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성/화면 해설은 별도의 수신기를 이용해 원하는 관객에게만 전달하는 ‘폐쇄형’ 방식과 관객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행해지는 ‘개방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4) 문자 통역/자막 해설

음성언어/청각 정보를 문자(한글 등)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 통역은 수어를 알지 못하고 음성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난청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접근성 지원의 도구이며 자막 해설 또한 음성언어/청각 정보가 있는 공연이나 영상 화면에서의 음성언어를 자막화하여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연 진행 시 무대 위의 상황과 대사들을 배경에 대본처럼 띄우기도 하며 영상/미디어 작품의 경우 청각 정보에 대한 묘사나 나레이션 등을 화면 자막으로 넣기도 합니다.

#### 5) 점자

촉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볼록한 점의 위치를 사용해서 문자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글 점자의 경우 ‘공공기관 점자 문서’ 기준이 있습니다.

#### 6) 촉각 자료/작품

시각예술 작품을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보조도구로 조각 및 설치 작품의 미니어처 혹은 1:1 크기의 3D프린팅, 평면 작품의 압안 드로잉 등 원본 작품을 기반으로 재창조되거나 만질 수 있게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합니다.

#### 7) 터치투어(촉각투어)

배우 또는 무용수의 의상이나 소품을 만져보거나, 무대 디자인, 연주자들의 위치 등을 직접 무대 위에서 이동하며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촉각을 통해 공연 전반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보통 시각장애인 등 원하는 관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장 입구에 소품이나 무대 모형 등을 만져볼 수 있게 전시하거나, 공연 전 관객과 함께 극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직접 무대 환경과 조건을 경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8) 보도블록 (점자 블록과 유도블록)

보도블록은 변환점과 장애물 등 앞에서 잠시 멈추는 표식인 점자 블록과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선 형태의 유도 블록이 있습니다. 필요시 시설 내부에 부착형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9) 안내보행**

가까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정류장으로부터 문화시설까지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사전 신청을 통해 이동지원 스태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0) 열린 객석**

공연장의 경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거나 재입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연 중 극장 안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암전을 최소화하며, 관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원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 위에 언급한 접근성 수단들이 문화시설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연시설/전시시설 접근성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성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매니저)]

다양한 접근성 수단들을 각 문화시설의 상황에 맞게 기획하고, 기본적인 운영 방향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전담 부서(팀) 또는 담당자(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각 시설/기관의 운영체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외부의 정책적인 결정과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접근성을 전담하는 부서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공연/전시시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 매니저는 ‘모두예술극장’이 국내 대표적인 접근성 전담인력 운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전담 부서의 역할]

접근성 부서에서는 장애인뿐 아니라 다층적인 접근성 요구를 가진 방문객들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중 장애와 관련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관리

건물 내 휠체어 접근로, 점자 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시각/청각장애인 안내 시스템 구축

### 2. 장애인을 위한 관람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청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청각 보조 장치 활용에 대한 계획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 촉각 지도, 촉각 투어 등에 대한 개발과  
제공  
포용적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 방안 마련

### 3. 프로그램 및 이벤트의 접근성 보장

프로그램과 이벤트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예: 강연 프로그램의 수어통역사 및 문자통역 배치, 자폐  
관람객을 위한 릴렉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기획 협력 등)

### 4.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성 방안 마련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료가 모든 방문객이 사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콘텐츠 제공에 대한 기획 및 방문객에 대한 접객과  
매표소/정보데스크의 운영 방안 마련 등

## 5. 접근성 및 장애 감수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내부 직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 대상 장애 인식 교육 및 접근성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6. 기관 내부 접근성 정책 개발 및 평가 기준/가이드 수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 수립 및 이를 조직 전반에 적용  
접근성 프로그램과 시설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접근성 향상 도모

### [사례 :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 내 접근성 부서 ‘Access Smithsonian’]

Access Smithsonian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연구소가 모든 방문객에게 다양성, 형평성, 접근성, 포용성을 목표로 접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 주요 역할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방문객이 차별 없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미소니언 19개 박물관, 9개 연구센터, 동물원 등 전 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직원 및 방문객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개발하며 진행합니다.

#### 주요 업무

기관의 접근성 정책 및 지침 개발

시설 접근성 평가 및 개선안 마련

프로그램의 접근성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수화통역, 자막, 오디오 해설 등 접근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출판물 등의 정보 접근성 관리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원 채용 및 교육 지원 등

##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

모두예술극장에서는 접근성 매니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향유를 전문적으로 돕는 접근성 매니저”.  
 이와 함께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을 “공연을 향유하고 창작할 때 마주하는  
 다양한 감각의 단차를 서로 인지하고 함께 그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역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접근성 매니저는 이동부터 공연 감상과 참여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중간 매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 접근성 매니저의 활동이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역할에 대한 정의도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과 기능을 공통적으로 규격화해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실정입니다.(해외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2020년 ‘국립극단 장애와 연극 창작/제작 방향성  
 연구’에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접근성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접근성 매니저와 유사할 수 있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음성해설,  
 자막해설 등 접근성 콘텐츠 분야에 전문화된 역할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 매니저의 개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두예술극장의 표현처럼 각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안에  
 존재하게 되는 장벽을 없애는 매개자의 역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나,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큐레이터부터 작가, 전시장 안내원까지 모두가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과 입장에서 해당 전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가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영역에서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의 개념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다면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도 특정  
 분야의 전문적 역할을 위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접근성 매니저]

‘2023 국내외 직업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연구(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접근성 매니저를 신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1) 문화예술 프로젝트 전반의 장애인 접근 장벽 개선 방안 기획
- 2)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
- 3)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예약
- 4) 접근가능한 프로젝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관람하는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관리
- 6)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컨설팅

## 다. 장애 및 접근성 관련 기호와 상징들: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간단하고 명확한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 데이터,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시각적 도구입니다. 이러한 기호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또는 제공하지 않는 접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픽토그램을 사용한다면 정보전달을 명확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약속되지 않았거나 자의적으로 표현된 픽토그램은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된 장애/접근성 관련 픽토그램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 국내 및 국제 표준 기반 장애/접근성 관련 픽토그램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및 접근성 관련 픽토그램은 국제 표준(ISO)을 기본으로 합니다. 국제 표준인 ISO 7001(공공 정보 기호 체계)는 공공 정보에 대한 픽토그램 및 기호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접근성(accessibility; AC/ISO 7001 PI AC)으로 분류된 것은 23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체중인 우선’과 ‘범용 환복 장소’ 등에 대한 픽토그램이 추가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KS S ISO 7001:2017 그래픽 심볼-공공 안내 심볼’이 있으며 ISO 7001 규격을 기반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 시설 안내 심볼(PI PF)’ 중에 접근성과 관련된 픽토그램은 약 16개 정도입니다.

국내 및 국제 공공 정보 기호 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표준정보망’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픽토그램 단위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픽토그램은 국내 표준이지만 국제 표준 픽토그램과 같은 심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점자 제외)

| [표 11] 국내 표준 기반 장애/접근성 픽토그램 |

			
PI PF 006 장애인용 화장실	PI PF 0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PI PF 03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승강기)	PI PF 045 보행 장애
			
PI PF 046 보조견 접근성	PI PF 048 보조자 지원	PI PF 048 청각장애	PI PF 049 시력 손상
			
PI PF 051 맹인, 약시	PI PF 055 노인배려	PI PF 056 상해인 배려	PI PF 057 심장박동기 착용자 배려
			
PI PF 058 유아 동반자 배려	PI PF 059 임신부 배려	PI PF 072 청각장애인용 루프	PI PF 01.1033 점자

국내외 픽토그램들이 시설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를 안내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수어의 경우 국제 및 국내 픽토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관이 국제적인 기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픽토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한 ‘디자이너를 위한 그래픽 심볼 제작 가이드’에서 그래픽 심볼 제작 원칙 등을 설명해 주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픽토그램을 시설/기관별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확성 부족:** 픽토그램의 목적은 정보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체 개발한 픽토그램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부족:** 다양한 픽토그램을 함께 사용할 때, 각각의 디자인과 스타일이 일관되지 않으면 보는 사람이 정보를 해석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 저하:** 픽토그램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픽토그램이 널리 인식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하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 국내외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픽토그램

### 국립중앙박물관 접근성 지원 픽토그램

[그림 15] 접근성 지원 픽토그램 사용 예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프랑스 문화부에서 사용하는 접근성 픽토그램

[그림 16] 접근성 지원 픽토그램 사용 예시: 프랑스 문화부



©Ministère de la Culture







## 4. 문화시설 이용 여정에 따른 접근성

### 가. 문화시설 관람객의 경험지도

앞서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유형, 보다 세부적으로는 6가지 유형의 접근성 개념은 서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동시에 추진되었을 때에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접근성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람객이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특별한 문화적·예술적 경험을 준비하고 실현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문화시설에서도 공연/전시 등 핵심 콘텐츠에 대한 관람 단계뿐 아니라 관람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 관람객들이 경험하는 모든 접점에 대한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 지도(Experience Ma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 경험지도(Experience Map)와 여정지도(Journey Map)

##### • 공통점

여정지도와 경험지도는 모두 서비스와 콘텐츠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향유자/소비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지도 모두 수요자들이 관여하는 과정을 비슷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들이 경험하는 주요 단계들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이를 통한 행동의 가능성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도출한 지도입니다.

##### • 차이점

하지만 여정지도가 한 회사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특정한 상품이나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구매자 별로 매우 세부적인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험지도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상당히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구매자의 경험을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험지도를 통해 시설 운영/기획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 시설 운영/기획자와 관람객의 기대 사이의 ‘만족도 차이’를 줄일 수 있고,
- 2)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포함하여 관람객의 욕구에 주목할 수 있으며,
- 3) 관람객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것을 느끼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 4) 관람객과의 실제적인 접점(touch points)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경험지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관람객의 여정을 8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관람객과의 접점(touch points)을 각 문화시설의 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Ⅰ [표 12] 문화시설 경험지도의 단계구분 및 주요 접점 Ⅰ

단계 구분	관람객 주요 접점	
사전 단계	1. 방문 고려	홍보물, 마케팅, 입소문 등
	2. 방문 계획	가이드북, 홈페이지, 교통편 등
	3. 현장 도착	지도, 키오스크, 사인물 등
관람 단계	4. 시설 입장	입장권 구입, 보조도구 대여, 물품 보관, 안내 서비스 제공 등
	5. 시설 경험	음성해설, 자막 해설, 영상 안내, 안내 스태프, 휴식공간 등
	6. 시설 퇴장	대여 물품 반납, 기념품샵, 편의시설 등
사후 단계	7. 현장 퇴장	교통편, 안내사인 등
	8. 귀가	기록물, 경험 공유 등

※ 위 [표 12]는 스미스소니언 뮤지엄 경험지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사전 단계

사전 단계는 문화시설에 대한 방문 고려, 방문 계획,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마케팅, 입소문 등 문화시설 방문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가이드북과 홈페이지, 주요한 교통편, 현장에서의 안내지도, 사인물 등은 장애 유형에 따라 접근 가능한지 등이 고려할 내용들입니다.

## 관람 단계

관람 단계는 문화시설 입장, 시설 및 시설 내 콘텐츠 경험과 퇴장까지의 과정입니다. 입장권 구입 방법과 데스크의 위치 및 높이는 적절한지, 보조도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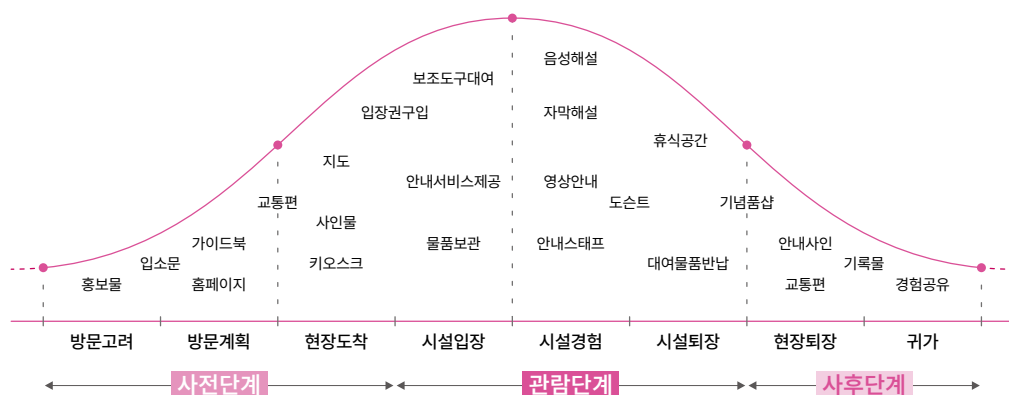
어떤 것들이 제공/대여 가능한지, 콘텐츠 경험을 위한 안내 서비스와 시설 내 감각지도, 휴식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퇴장 동선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접근성 또한 관람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후 단계

사후 단계는 관람객이 문화시설에서의 경험을 다 마치고 퇴장하여, 귀가한 이후의 단계까지 고려합니다. 보고 느꼈던 내용을 주변에 전달하거나 SNS에 남길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하는 것은 문화시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한 문화시설의 단계별 경험지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 17] 문화시설 단계별 경험지도의 개념적 표현







## 나. 경험지도와 문화시설 접근성

### 접근성 유형과 경험지도 단계의 결합

앞서 살펴본 접근성의 세 가지 유형과 경험지도에서 구분하는 세 단계를 결합하여,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의 시도들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성 전략 프레임워크를 나름의 방식으로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 단계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웹 접근성, 시설(교통) 접근성과 같은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외에도 경제적/심리적 접근성, 의사결정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람 단계에서는 시설 내에서의 감각적 접근성과 시설(이동) 접근성, 콘텐츠/서비스 관람 과정에서의 태도적 접근성, 지적 접근성, 정서적 접근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단계에서는 웹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 의사결정 접근성 등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 [표 13] 여정의 단계별 접근성 결합 |

구분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사회적·문화적 접근성
사전 단계	1. 방문 고려	정보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의사결정 접근성 (거버넌스)
	2. 방문 계획	웹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3. 현장 도착	시설(교통) 접근성		
관람 단계	4. 시설 입장	감각적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
	5. 시설 경험	시설 접근성(이동)	지적 접근성	
	6. 시설 퇴장		정서적 접근성	
사후 단계	7. 현장 퇴장	웹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의사결정 접근성 (환류)
	8.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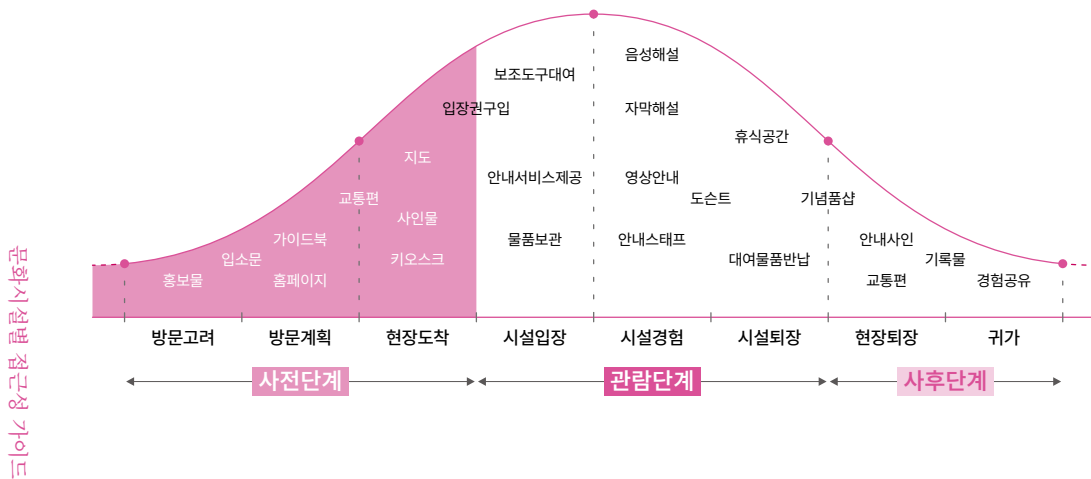
## 단계별 접근성 고려사항

각 단계별 주요한 접근성 고려사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사전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문화시설 이용의 사전 단계(방문 고려, 방문 계획, 현장 도착)에서 고려할 접근성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9] 사전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방문 고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의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문화시설 방문을 고려하는 장애인 관람객의 웹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위해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접근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계획] 교통편을 고려하여 주차장이나 정류장으로부터 현장까지, 현장에서 건물까지, 그리고 건물 내부의 물리적 환경과 예상 시간 등을 담은 지도나 안내보행 등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 도착] 감각적 접근성을 고려한 각종 안내 사인과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 분명한 공간 및 동선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동선상의 물리적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방문 고려] 공연이나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나 포스터, 보도 자료 등을 작성할 때 장애인들의 지적, 정서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계획] 문화시설 방문을 계획할 때 장애인 관람객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수단(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응대를 위한 태도적 접근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및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 도착] 정서적 접근성을 고려한 안내 사인과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 환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리적인 장애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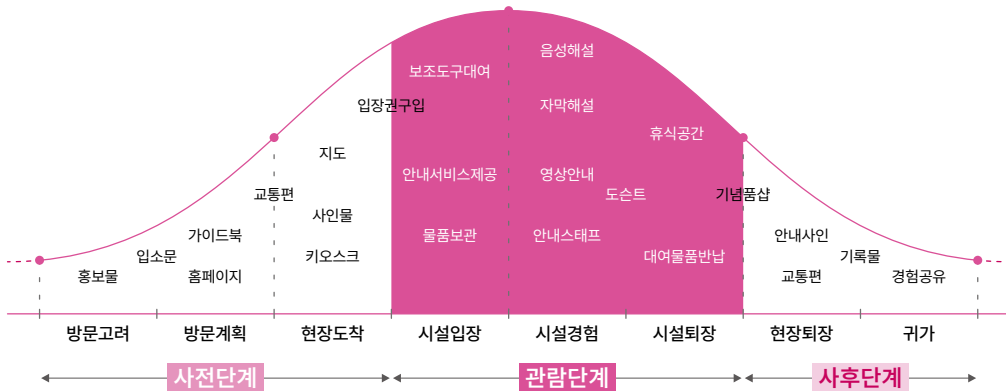
## 사회적·문화적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방문 고려] 문화시설의 운영 규정 및 매뉴얼 마련을 비롯하여 직원 교육, 장애인 방문객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 접근성과 공연/전시 등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 제고를 통한 기관의 브랜드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관람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문화시설 이용의 사전 단계(시설 입장, 시설 경험, 시설 퇴장)에서 고려할 접근성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0] 관람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시설 입장] 안내 데스크, 티켓 박스,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좌석 등의 물리적 접근성과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감각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설 경험] 문화시설의 메인 콘텐츠에 대한 감각적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보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식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퇴장] 퇴장 동선 확보와 로비 공간으로의 연결, 짐 보관소, 안내 데스크, 주차 확인 등의 물리적 접근성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감각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시설 입장] 안내 데스크를 포함하여 현장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장애인 관람객 응대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서 태도적 접근성과 정서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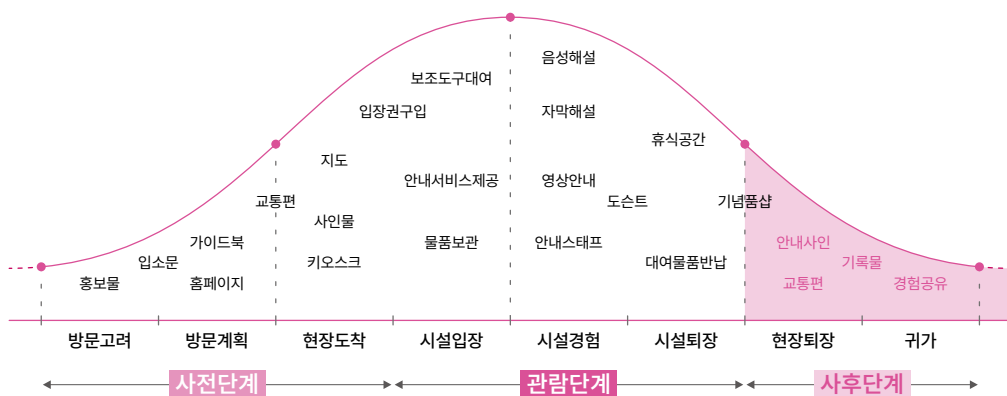
[시설 경험] 장애인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차별적인 내용 및 형식이 콘텐츠 안에 무심코 담기지 않도록 지적 접근성과 정서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구성하고 내용 전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퇴장] 퇴장 동선 및 교통편 연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 공연장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관람 이후 시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태도적 접근성과 정서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3) 사후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문화시설 이용의 사후 단계(현장 퇴장, 귀가)에서 고려할 접근성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1] 사후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 물리적·감각적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현장 퇴장] 감각적 접근성을 고려한 각종 안내 사인을 통해서 분명한 공간 및 동선 정보를 제공하고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귀가] 관람 경험을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웹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현장 퇴장] 정서적 접근성을 고려한 안내 사인을 통해서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리적 장애물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가] 수신 동의가 이루어진 고객들에게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련 정보와 향후 내용 등을 안내하여 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적·문화적 접근성 관련 고려사항

[귀가] 커뮤니티 플랫폼, SNS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 관람객의 의사결정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태도는?

###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접근성 유형에 따라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한발 더 나아가서 장애유형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접근성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문화시설/기관 종사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전체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시급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도, 문화시설의 상황과 인력,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관람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콘텐츠 접근성’은 어렵지 않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시설 보수나 개선은 큰 예산이 들 수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접근성 단계의 기본이 되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물리적/감각적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문화적 접근성의 경우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콘텐츠 접근성은 단기간에도 주목할 변화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를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가올 큰 변화의 전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5. 접근성에 관한 FAQ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예술교육 권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론’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루었고, ‘가이드’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쉽게 풀어 보려고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 어떤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기획-진행-종료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이보다는 훨씬 더 복잡적일 것입니다. 단지 한두 개의 해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획 단계에서의 질문들

### Q1. 접근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한가요?

각 문화시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접근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문화시설의 모든 영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관련 업무를 어느 한 부서나 담당자가 전담하는 형태로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문화시설 중에서도 접근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예술극장(접근성 매니저), 아르코예술극장(접근성 PD)이 내부에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접근성 관련 업무를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거나, 공연/전시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접근성 매니저)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연시설에서 접근성 공연을 기획, 제작할 경우 프로덕션 단위로 접근성 매니저가 참여하여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전시시설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담 인력 또는 접근성 매니저와의 협업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외부 접근성 매니저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시설이 속한 지역사회의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다양한 관계성을 통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문화시설이 가진 운영 방향성, 운영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내부 논의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Q2. 접근성 업무 담당 인력은 언제부터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접근성 담당 인력(접근성 매니저)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급적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연이나 전시의 콘셉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함께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성의 범위가 물리적인 접근성부터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문화적 접근성까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본방향이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접근성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과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문화예술 장르와 창작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접근성 매니저가 초기 단계부터 준비 과정에 깊이 참여해 문제해결 과정을 조율하고 관객 응대 분야에 자문하는 형태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연/전시와는 조금 다른 접근성 서비스와 콘텐츠의 전달 방식을 선보이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 **Q3. 접근성을 고려한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역시 문화시설마다 상황이 다르고, 해당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적인 사업예산의 약 1.5배 정도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일정 부분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 이외에, 접근성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논의와 시뮬레이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항목 중에서는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도 있지만, 장애인 예술가, 장애인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역 전문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 영상 제작 등의 비용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산뿐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도 통상적인 사업기간 보다 넉넉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과 기간은 대략적인 경험치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실현하고자 하는 접근성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 기간/비용을 관련 기관, 업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할 만한 기관, 단체, 업체 정보를 별첨해 두었습니다.)

아우  
다들

## **진행 단계에서의 질문들**

### **Q4. 내부에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접근성과 관련된 영역이 워낙 다양하고 넓다 보니, 사업 담당자나 기획자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사업예산이나 기간을 정하려고 해도 운영부서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존과는 다른 장치와 시도를 해야 하기에 시설 담당 부서와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포스터나 팜플렛,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디자인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당자 개인의 역량으로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설/기관 차원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나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접근성 가이드 내용, 특히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접근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워크숍이나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 교육 내용(안)

1. [이론/배경] 접근성이란 무엇인가
2. [이론/사례]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 가이드
3. [이론/사례] 장애유형별 고려사항과 접근성 향상 수단들
4. [이론/사례] 문화시설 이용 여정에 따른 접근성
5. [워크숍] 우리 문화시설의 경험지도 그리기
6. [워크숍] 우리 문화시설 접근성 투어 체험

무엇보다 접근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단지 일부 장애인 관람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을 위한 것임을 모든 내부 구성원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 Q5. 물리적인 접근성을 먼저 갖춰야 할까요?

기본적인 물리적 접근성은 모든 접근성 논의의 전제조건입니다. 물리적으로 문화시설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물리적/시설적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 접근성 개선은 대부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설 전체적인 구조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기에 단지 접근성을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개선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나 정부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개선은 준비와 실행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적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서비스 접근성 방안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 개선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Q6. 문화시설 내에서 장애인 관람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공연시설 접근성 가이드> 중, ‘공연장에서의 접근성과 안전’ 파트에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문화시설 내에서 접근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칫 관람객(특히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모든 시설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연시설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기에 보다 자세히 기술해 두었습니다.)

개별 문화시설마다 관람객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준수하되, 장애인 관람객의 경우는 위급 상황 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재난 상황 시 피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 장애유형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공연/전시에 입장한 장애인 관람객의 장애 여부 등을 최대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응 또는 대피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인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숙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  
라  
비  
다

## **종료 단계에서의 질문들**

### **Q7. 접근성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별 접근성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잘 활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또한 <공연시설/전시시설 접근성 가이드> 중 ‘피드백’ 파트에 예시와 함께 상세히 기술해 두었습니다.

문화시설에 방문한 장애인 관람객 본인뿐 아니라 동반자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문의 내용은 콘텐츠에 대한 사항과 제공된 접근성 서비스 및 장치들에 대한 의견, 시설 내 동선과 편의시설 등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경험의 여정을 고려할 때, 방문 전 단계와 방문 이후를 고려한 문항도 구성한다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식 외에, 관계자나 참여 예술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별도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설문조사 보다는 소그룹 형태의 라운드테이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Q8. 접근성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드시 모든 진행과정을 기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개별 문화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접근성 프로그램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특수성을 띠고 있기에 그 과정 자체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누구와 협력했고, 어디에 연락을 했는지, 혹은 실행은 못 했지만 가능성을 발견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 ‘사업결과보고서’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실제 현장에는 꼭 필요한 정보들이 폴더 안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경험을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세미나, 워크숍 등의 과정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두시면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것입니다.

#### **Q9.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나요?**

앞서 논의했던, 각 문화시설별 과정의 기록이 쌓이고 또 공유가 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접근성 가이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가이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나오고, 접근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권의 가이드가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의 사례들과 실제 기획하고 참여한 분들의 인터뷰로도 충분히 훌륭한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구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소위 ‘실패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워야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접근성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접근성 프로그램을 통해 각 문화시설에서의 콘텐츠와 서비스가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 참고할 만한 자료들

### 가. 관련 기관 및 단체

#### 1) 관련 기관 및 단체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홈페이지 [www.i-eum.or.kr](http://www.i-eum.or.kr)  
 주소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  
 전화 02-760-9700 (FAX : 02-760-9788)  
 이메일 [ieum@kdac.or.kr](mailto:ieum@kdac.or.kr)

---

문화예술공간 대학로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운영. 창작지원사업, 접근성 강화 콘텐츠 제작, 장애예술 및 접근성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우선구매 중개 기관으로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판매자 매뉴얼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구매자 매뉴얼 제공

— 우선구매제 회원가입: [www.i-eum.or.kr/member/signup/step1](http://www.i-eum.or.kr/member/signup/step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http://i-eumcreative.org/>

##### 한국장애인개발원

---

홈페이지 [www.koddi.or.kr](http://www.koddi.or.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전화 02-3433-0600 (FAX : 02-412-0463)

---

장애인종합복지공간 이룸센터 운영

— <https://eroom.koddi.or.kr/home/kor/main.do>

사업분야: 정책연구, 일자리개발, 직업재활, 우선구매,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사업 : 기술상담 및 기술지원, 공공/민간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편의 증진 교육(건축사 실무교육, 편의증진 민간교육 등) 제공

—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업 수행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 쇼핑몰 꿈드래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http://www.kead.or.kr)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전화 1588-1519, 031-728-7001~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고용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수행

전국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관련 자료실 운영

고용개발원: <https://edi.kead.or.kr/>

— 보고서, 학술지, 고용실태조사 등 자료제공 및 연구과제 수행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kodaf.or.kr](http://kodaf.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F  
 전화 02-783-0067  
 이메일 [mail@kodaf.kr](mailto:mail@kodaf.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kodaf.or.kr](http://kodaf.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3F  
 전화 02-784-3501

## 한국장애인연맹

홈페이지 [dpikorea.org](http://dpikorea.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05호  
 전화 02-457-0427  
 이메일 [dpikorea@dpikorea.org](mailto:dpikorea@dpikorea.org)

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 국제장애인연맹)의 국내 회원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www.kappd.or.kr/kappd](http://www.kappd.or.kr/kappd)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번지)  
 전화 02-796-4280  
 이메일 [kappd@kappd.or.kr](mailto:kappd@kappd.or.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601호  
 전화 02-799-1000

한국시각장애인미디어진흥원: TV방송은 물론 각양각색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화면해설 또는 음성해설, 그림해설 등을 통해 시각적 정보를 소리 정보로 전환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

— [www.kbuwel.or.kr/Facilities/BroadcastingCenter](http://www.kbuwel.or.kr/Facilities/BroadcastingCenter)

— 전화: 02-799-1060~3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자료: [www.kbuwel.or.kr/Blind/What](http://www.kbuwel.or.kr/Blind/What)

아  
라  
비  
어

##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www.deafkorea.com](http://www.deafkorea.com)  
 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103호  
 전화 02-461-2261  
 영상전화 070-7947-0001, 0002

수어통역센터 운영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 [www.kaidd.or.kr](http://www.kaidd.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F  
 전화 02-592-5023~4  
 이메일 [kaidd@hanmail.net](mailto:kaidd@hanmail.net)

### 의사소통지원사업

— [www.kaidd.or.kr/business/?act=sub4](http://www.kaidd.or.kr/business/?act=sub4)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홈페이지 [www.kshb.or.kr](http://www.kshb.or.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 607호  
 전화 02-3437-2081  
 영상전화 [kcpd1006@naver.com](mailto:kcpd1006@naver.com)

###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www.kshb.or.kr/major-bussiness/seoul-communication-rights-promotion-center-introduce](http://www.kshb.or.kr/major-bussiness/seoul-communication-rights-promotion-center-introduce)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www.hinet.or.kr](http://www.hinet.or.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5-4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9층  
 전화 02-3481-1291~4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교육,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23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운영(전국 장애인복지관 회원기관 250개소 대상)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홈페이지 [www.silwel.org](http://www.silwel.org)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전화 02-880-0505  
 이메일 [siloamwf@daum.net](mailto:siloamwf@daum.net)

점역, 점자 대체자료 제작

— [www.silwel.org/silwelfare\\_new/contents.php?gr=2&page=2](http://www.silwel.org/silwelfare_new/contents.php?gr=2&page=2)

시각장애인의 음악활동 지원

— [www.silwel.org/silwelfare\\_new/contents.php?gr=2&page=3](http://www.silwel.org/silwelfare_new/contents.php?gr=2&page=3)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센터

— [www.silwel.org/silwelfare\\_new/contents.php?gr=2&page=10](http://www.silwel.org/silwelfare_new/contents.php?gr=2&page=10)

##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홈페이지 [www.miral.org/main/main.asp](http://www.miral.org/main/main.asp)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503호  
 전화 070-8708-9617(헬렌켈러센터)  
 070-8708-9980(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시각과 청각에 모두 장애가 있는 시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옹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

##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

홈페이지 [www.smiletogether.or.kr](http://www.smiletogether.or.kr)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5층 504호  
 전화 031-719-6111  
 이메일 [stf@smiletogether.or.kr](mailto:stf@smiletogether.or.kr)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는,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교육, 치유,  
 소통을 통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

## 2) 접근성 관련 참고 기관

### 모두예술극장

홈페이지 moduarttheater.or.kr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 구세군빌딩 1~3층  
전화 02-760-9780

2023년 9월 개관한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  
장애 예술가와 기술 스태프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장애 유형별 특화 공연 제작, 다양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제공  
접근성 서비스 운영 전담 인력 상주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www.korean.g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  
전화 02-2669-9775

수어사전 및 교육과정 운영, 점자소개 및 규정과 해설 정보 제공  
한국수어교원을 통해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개인자격 및 교과정 심의제도 운영  
특수언어진흥과 연락처

- 전화: 02-2669-9691, 9694
- 영상전화: 070-7947-7103
- 전자우편: kslteacher@korea.kr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 <https://korean.go.kr/braille/common/greeting.do>  
— 점자 문서 편집, 점자 파일 관리, 점자 파일 인쇄, 점역 환경 설정,  
점역 기능, 역점역 기능을 제공하는 윈도우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  
사용설명서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www.nld.go.kr](http://www.nld.go.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화 02-590-6336, 1644-6044 (FAX : 02-590-0656)

대체자료 제작 등 장애인이용자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활용법  
 및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전국 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설치·운영 상담 등 장애인  
 정보 누리터 운영  
 독서보조기기 목록과 도서관별 보유현황 소개

## 국립중앙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www.knat.go.kr](http://www.knat.g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전화 1670-5529

보조기기 사례관리 및 품질관리 사업 운영  
 보조기기 조회 및 지원정보  
 — [www.knat.go.kr/knw/home/knat\\_DB/all\\_new.php](http://www.knat.go.kr/knw/home/knat_DB/all_new.php)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 가이드라인, 안전사고 사례  
 — [www.knat.go.kr/knw/home/board/brd\\_lst.php?tb\\_no=56](http://www.knat.go.kr/knw/home/board/brd_lst.php?tb_no=56)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홈페이지 [www.nia.or.kr](http://www.nia.or.kr)  
 주소 대구본원 :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53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제주 NIA 글로벌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전화 대구본원 : 053-230-1114  
 서울사무소 : 053-230-1114  
 제주글로벌센터 : 064-909-3114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모바일 앱, 키오스크의 접근성 개선 지원  
 손말이음센터 운영: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a href="http://www.at4u.or.kr">www.at4u.or.kr</a>
주소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전화	보급 및 신청 문의 : 1588-2670
	보조기기 보급사업 문의 : 053-230-1372
	보조기기 개발사업 문의 : 053-230-1362

---

### 3) 서비스 제공·협력처

#### [청각·언어장애 통역]

#####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

홈페이지 [www.17nsl.com](http://www.17nsl.com)  
 주소 서울 금천구 벚꽃로 234 ACE하이엔드타워 6차 1103호  
 전화 02-6925-0175  
 이메일 [17nsl@17nsl.com](mailto:17nsl@17nsl.com)  
 영상전화 문자/영상전화 : 010-5846-0175  
 씨토크 : 070-7947-0700

---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홈페이지 [audsc.org](http://audsc.org)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G404  
 전화 02-2038-3653  
 이메일 [audsc@audsc.org](mailto:audsc@audsc.org)

---

에이유디 조합원의 행사, 인터뷰, 회의 등 규모별 문자통역 파견 지원  
 셰어타이핑([www.sharetyping.com](http://www.sharetyping.com))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의 문자통역  
 서울시 문자통역서비스 ‘소통’을 통한 서울시 농난청인 대상 무료 문자통역  
 지원

##### 소보로

---

홈페이지 [sovorokr](http://sovorok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905호  
 전화 1661-0552  
 이메일 [contact@sovorokr](mailto:contact@sovorokr)

---

소보로는 인공지능 기반 원스탑 자막관리 서비스. 소보로 태블릿으로  
 공공기관, 병원, 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의 소통 지원

홈페이지 107.relaycall.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46 2층 손말이음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5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F

전화 국번없이 107 / 02-6943-2435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

### ※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 문자 중계서비스(Text Relay Service)

이용자가 실시간 문자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중계사가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전달

#### 영상중계서비스(Video Relay Services)

이용자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수어로 통화 내용을 전달하면 중계사가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이용자에게 수어로 전달

#### 발화청취 가능자용 서비스 (Voice Carry Over / Hearing Carry Over)

말은 할 수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용자(발화가능자)가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중계사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수어나 문자로 이용자에게 전달, 들을 수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이용자(청취가능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어로 하거나 문자로 입력하면, 중계사가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은 이용자에게 통화 내용을 직접 음성으로 전달

#### 107 음성전화 중계

청각·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비장애인 이용자가 통화 내용을 중계사에게 음성으로 전달하면, 중계사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로 전달하는 서비스

#### 원격수어통역 서비스

현장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화할 수 있도록 원격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 [쉬운 정보 제작]

## 소소한 소통

---

홈페이지 [www.sosocomm.com](http://www.sosocomm.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트리플렉스 1504호  
 전화 02-2676-3974  
 이메일 [soso@sosocomm.com](mailto:soso@sosocomm.com)

---

## 알다 -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

홈페이지 [www.easy-read.or.kr](http://www.easy-read.or.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한얼빌딩 3층  
 전화 02-730-4804 (FAX : 070-7500-3933)  
 이메일 [ez-center@hanmail.net](mailto:ez-center@hanmail.net)

---

(주)도서출판 점자

홈페이지 kbraille.imweb.me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48, 1동 420호  
전화 대표전화 : 02-3426-7211  
인쇄물 문의 : 02-3426-7511  
도서 문의 : 02-3426-7500  
이메일 book@kbraille.com

점자/축각/확대 자료의 제작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서비스/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제일특수기획

홈페이지 제일특수기획.kr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37번길 6  
전화 043-259-6494  
이메일 jeil6494@hanmail.net

나누미촉각연구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22 4층  
전화 010-2020-3791

촉지도 및 촉각 도서 연구 및 보급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 :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웹와치(주)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1년

심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홈페이지 [www.wa.or.kr](http://www.wa.or.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A동 1004, 1005호  
(양평동 5가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전화 02-858-7220 (FAX : 02-851-7220)

이메일 [wa@wa.or.kr](mailto:wa@wa.or.kr)

###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홈페이지 [www.kwacc.or.kr](http://www.kwacc.or.kr)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1121호

전화 02-973-0073

이메일 [kdaa@kdaa.or.kr](mailto:kdaa@kdaa.or.kr)

## 나. 관련 제도 및 사업

### 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관련 제도 및 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의 정책적 지원을 담은 법률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15개 조항으로 구성됨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내용을 개정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 (2022~2026)	—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 일자리 등 자립 기반 조성 —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확대 — 지원정책 기반 조성 —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 5개 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추진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가이드북 마련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	관계부처합동계획으로 9대 정책분야에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1차 실태조사('22)를 바탕으로 접근성 가이드 제작('23), 배포 교육('24~'27), 2차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26) 추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약칭 BF인증)

홈페이지	<a href="http://www.koddi.or.kr/bf/main/index.do">www.koddi.or.kr/bf/main/index.do</a>
내용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인증하는 제도
주무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관련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19.12.3.개정) 제10조의2</li> <li>—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0.10.20.일부 개정) 제17조의2</li> <l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li> <l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2018.8.3.개정)</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li> <li>—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li> </ul>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p> <p>[인증신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li> <li>—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li> </ul>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내용	<p>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p> <p>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p> <p>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p> <p>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p> <p>* 1인당 연간 11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p>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법	<p>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p> <p>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p>
대상	<p>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p> <p>—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p> <p>—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p>
세부 사항	<p>17개 지역 주관처 <a href="https://www.mnuri.kr/munhwa/localGovernment.do">https://www.mnuri.kr/munhwa/localGovernment.do</a></p> <p>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p>

홈페이지	<a href="http://www.nanumticket.or.kr">www.nanumticket.or.kr</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체험을 통한 감수성, 창의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li> <li>— 문화예술단체의 미판매 예상 티켓을 50~80% 할인판매 또는 객석기부를 통하여 문화예술후원</li> </ul>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법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대상	문화예술단체의 할인판매와 객석기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세부 사항	티켓참여 링크 <a href="http://www.nanumticket.or.kr/agency/info.html">www.nanumticket.or.kr/agency/info.html</a>

## 우선구매

홈페이지	<a href="http://www.i-eum.or.kr/contents/view?contentsNo=27&amp;level=1&amp;menuNo=16">www.i-eum.or.kr/contents/view?contentsNo=27&amp;level=1&amp;menuNo=16</a>
내용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관련 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대상	「공예문화산업지원법」에 따른 공예품 「공연법」에 따른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다. 주요 참고자료

### 해외 접근성 가이드

Design for Accessibility: A Cultural administrator's handbook,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1994.

Disability Directory for Museums and galleries,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2001.01.

Disability Portfolio Guide,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12권)

Disability in Context

Meeting Disabled People

Training for Equality

Audit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Inclusive Information

Using Technology

Access on a Shoestring

Accessible Environments

Outreach and Partnerships

Consulting Disabled People

Employment at Every Level

Building Access: A good practice guide for arts and cultural organisations, Arts Council England. 2019.

Exhibitions for All: A practical guide to designing inclusive exhibitions, NMS-National Museums of Scotland. 2002.

DIY Access Guide-Attitude is Everything, Arts Council England. 2017.

A Theater Guide for Access Providers, Casey Peek, Chicago Cultural access.

Accessibility without Limits, Rijksmuseum.2022.

Accessible Exhibition Design, Accessiblearts.-이음장애예술창작아카데미 교육자료

프랑스 문화부 발간 장애 접근성 가이드 시리즈(6권)

문화와 장애 접근성에 대한 실천 가이드(2007)

장애인의 공연예술 접근성 향상(2008)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2010)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 향상(2017)

장애인의 영화 분야 접근성 향상(2018)

장애인의 예술교육 접근성 향상(2021)

## 국내 문화시설 접근성 연구 및 가이드 자료

2022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2023.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문화체육관광부. 2013.9.

전시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22.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7.1.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 가이드라인 방향 수립 연구,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4.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연구,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4.11.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12.

장애와 연극 창작·제작 방향성 연구, (재)국립극단. 2020.

## 그림목차

- [그림 1] 접근가능성과 접근성 15
- [그림 2] 영국 접근성 가이드 샘플 16
- [그림 3] 접근성의 세 가지 층위 19
- [그림 4] 모두예술극장 주요 시설 30
- [그림 5] 국내 등록장애인 수(2023 장애통계연보) 32
- [그림 6] 국내 장애유형 현황 32
- [그림 7] 장애 유형 구분 33
- [그림 8] 장애인 연령 분포 및 장애 정도 33
- [그림 9] UN 발간 접근성보고서 38
- [그림 10] MLA 발간 접근성보고서 40
- [그림 11]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접근성의 세 가지 유형 45
- [그림 12] 6가지 장애 유형 55
- [그림 13] 한국 점자 사용 규격 57
- [그림 14] 농난청인 주요 의사소통 방법 60
- [그림 15] 접근성 지원 픽토그램 사용 예시: 국립중앙박물관 73
- [그림 16] 접근성 지원 픽토그램 사용 예시: 프랑스 문화부 73
- [그림 17] 문화시설 단계별 경험지도의 개념적 표현 79
- [그림 18]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경험지도 80
- [그림 19] 사전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82
- [그림 20] 관람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84
- [그림 21] 사후 단계에서의 접근성 고려사항 85

## 표목차

- [표 1] 접근성 가이드 권종별 구성 9
- [표 2] 인클루시브 디자인 원칙 23
- [표 3] 접근성 관련 유사개념 요약 25
- [표 4] 유럽 의회에서 주목하는 장애인 접근성 39
- [표 5]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위원회에서 제시한 8가지 유형의 접근성 41
- [표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의 장애인 접근성 43
- [표 7] 접근성 유형 구분 및 세부 유형별 주요 내용 46
- [표 8] 저시력자의 시야 예시 58
- [표 9] 농난청인 의사소통 지원 보조공학기기 60
- [표 10] 장애인복지법의 15가지 장애 유형 62
- [표 11] 국내 표준 기반 장애/접근성 픽토그램 71
- [표 12] 문화시설 경험지도의 단계구분 및 주요 접점 78
- [표 13] 여정의 단계별 접근성 결합 81

##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행인 김형희

사업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총괄 신상미 예술지원부 부장  
기획편집 정지윤 예술지원부 대리

사업수행 메타기획컨설팅  
연구총괄 오성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연구책임 김영익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연구PM 한수지 메타기획컨설팅 팀장  
연구 강재훈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엄태은 메타기획컨설팅 협력 컨설턴트  
정영석 피알원 시니어 컨설턴트

협력기획/공동집필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김원영 공연예술가/작가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장애 관련 감수  
시각장애 부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청각장애 부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 부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청각장애 부문 헬렌켈러센터  
발달장애 부문 함께웃는재단

디자인 그라핀  
편집 김현식, 조성익  
인쇄/제책 에프 스튜디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2  
02-760-9735  
<https://www.kdac.or.kr>

ISBN 979-11-986552-3-3  
ISBN 979-11-986552-2-6 (세트)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